"극단의 시대엔 '中道' 진리가 필요하다"

(사)고요한 소리, 15일 창립 30주년 법회 · 중도포럼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통해 설한 사성제와 핵심인 팔정도, 이를 실천하는 사상인 중도의 의미를 되짚고 현대적 구현을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초기불교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불전원전 번역단체인 (사)고요한 소리(공동대표 하주락 · 변영섭)는 4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법회와 중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는 (사)고요한 소리 창립자이자 회주인 활성 스님이 처음으로 대중법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인연담, (사)고요한 소리 창립 이유를 설명하고 사성제 · 팔정도 · 중도 등 불교의 핵심 교리에 대해 설했다.

선지식이 전한 중도의 의미

먼저 활성 스님은 자신의 출가 이야기 등을 풀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하던 활성 스님은 휴가를 받아 경봉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통도사 극락암에 갔다. 당시 경봉 스님은 "한 생 안 난 셈치고 살아라"라는 말을 해줬다. 휴가를 마치고 부산에서 친구를 만나 회포를 풀고 다시 상경했다. 하지만 2일 뒤 화재로 친구와 일가족은 전부 사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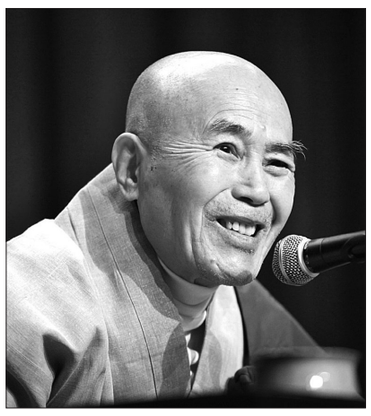
활성 스님은 "신문 기사를 보며 '사는 것이 무상하다', '이런 것도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안 난 셈치고 살아라'라는 경봉 스님의 말이 걸렸다. 결국 출가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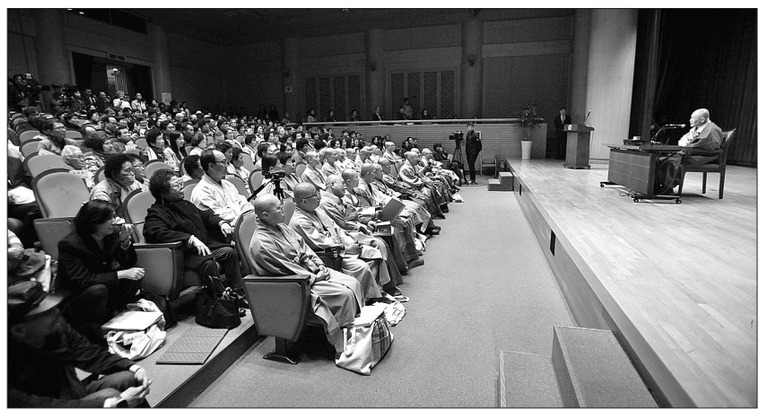
(사)고요한 소리 창립에 대해서는 '불교 중흥'과 '동량'이라는 두 키워드로 풀어냈다. 활성 스님은 "경봉 스님은 사미계를 주면서 '불교 중흥의 동량이 돼'라고 했다. '중흥'과 '동량'은 내 원력"이라면서 "봉암사 산문 폐쇄와 10.27법난 수습 등은 출가사문으로서 종단에 대한 빚을 갚은 것이고, 부처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시작된 게 (사)고요한 소리"라고 밝혔다.

활성 스님 첫 대중법문 '눈길'
사성제 · 팔정도 · 중도 등 설해
'중도' 주제로 한 포럼도 열려
초기불교 · 과학 등서 중도 이해

동 · 서양 각 문명권마다 '중(中)'의 개념은 존재했음을 전제한 스님은 중도와 중용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스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메소테스(Mesotes)'는 중간에 치중하다 보니 산술적으로 외연이 확장됐고, 물리학적 과학기술로 발전해 세상을 이끌었다. 중국의 '중용'은 '중을 항상 견지하는 것'인데 이는 추상적 개념으로 당위론적 가치로 그친다"고 설명했다.


대중법문을 하는 활성 스님. 스님은 부처님 생애에 주목하며 중도를 강조했다.


(사)고요한 소리 30주년 법회엔 수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어 "추상화되고 극단으로 가는 것은 중의 숙명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속성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면서 "부처님이 설한 '맛지마 빠띠빠다(majjhima patipada)'는 '중을 지향하는 걸음(中道)'이다. 중이 추상화 · 극단화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팔정도'를 따를 것도 당부했다. '중도'는 중과 도, 두 개념이 결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활성 스님은 길 위에서 일생을 보내며 깨달은 바를 시연했던 부처님의 생애에 주목했다. 스님은 "부처님은 궁이 아닌 길에서 태어나고, 길을 향해 뛰쳐나갔다. 길에서 수행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은 것을 길 위에서 평생 가르치고, 길 위에서 열반했다"면서 "부처님은 처(處)와 도(道)를 구분했다. 처는 집이고 도는 집을 벗어나서 향상일로를 걷는 것이다. 향상의 삶이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중도를 실천하는 길은 무엇일까. 스님은 팔정도에서 해법을 찾는다. '모든 것은 고(苦)'를 상기시킨 활성 스님은 "지구온난화, 사막화, 지진 등 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세상이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게 전부"라며 "팔정도는 고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며, 구체적 문제해결의 길"이라고 설했다.

팔정도가 팔정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념' 즉 마음 챙김이며, 이를 통해 극단을 가져오는 '상(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스님은 강조했다.

또한, 현대라는 격변기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과 진리관이 필요함을 역설한 스님은 "진리로서의 사성제, 그 사성제의 핵심인 팔정도, 팔정도의 실천으로써의 중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학자들이 말하는 중도

기념법회 이후 열린 중도포럼에서는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중도적 고찰부터 초기불교 안에서 중도 실천 · 수행 등이 조명됐다.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는 '진화하는 자연의 시공간적 연기구조와 중도'를 통해 현대과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불교의 중도 사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살폈다. 그는 "무상이고 무아인 존재자가 상입하며 펼치는 창발적 연기에 의해 진화하는 세계가 펼쳐진다"면서 "이런 자연세계에서 보여주는 시공간적 연기구조가 무상이고 무아며, 연기고 화엄이며, 중도"라고 밝혔다.

홍창성 미네소타주립대 철학과 교수는 '화쟁과 정도 그리고 중도'에서 최대 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의 원리가 현 시대에 맞는 중도의 원리임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서양의 공리주의와 법칙주의 그리고 불교의 이상을 화쟁해 도달한 '깨달음 산출의 원리'를 중도를 찾는 구체적이면서 포괄적 원리로 제안한다"면서 "최대다수 중생의 최고 깨달음 산출의 원리는 자연스럽게 팔정도를 포함하며 동시에 현대사회에서 불자로서의 길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이끌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긍정성 과잉의 문제와 중도'를 주제로 발표한 임승택 경북대 철학과 교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대량실업, 취업난, 트럼프 쇼크, 브렉시트, 국정농단 등의 현 상황을 되짚고 "중도는 '지금 여기'를 일깨움과 더불어 거룩한 진리를 완성해 나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도수 능인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의 '중도의 이해 틀에 관한 고찰', 이유미 스리랑카 캘라니야대학 불교철학 박사의 '니까야를 바탕으로 한 생활 속의 중도 실천', 김재성 능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의 '중도와 초기불교 수행' 등도 주제 발표됐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행주산성, 삼국시대 石城 있었다

불교문화재硏, 고양시 용역 시굴조사서 발견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왜군을 크게 이겼던 행주산성이 토성이 아닌 석성(石城)도 존재했음이 불교계 문화재연구기관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와 고양시(시장 최성)는 "사적 제56호 행주산성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시굴 조사 과정서 그동안 토성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석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습이 확인된 석성은 보축벽과 체성벽 등이며, 조성기시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된다. 성벽은 돌과 돌 사이에 진흙을 발라 양호한 상태로 보존돼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태선문 · 격자문 기와편, 토기편 등을 비롯해 '幸(행)'자명 기와편, 화살촉, 수레바퀴 부속품 등도 출토됐다.

고양시는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이번 발견을 계기로 내년부터 문화재청의 허가 및 지원을 받아 행주산성 석성의 축조기법 및 구조, 축성시기, 규모 등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전면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홍보관 등을 건립하여 삼국항쟁과 임진왜란 승전 중심지로서의 행주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에 나선다.

이번 석성 발견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은 "향후 원형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와 정비 사업을 추진해 행주산성이 고양시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가족포교 위해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백도수 교수, 4월 19일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서 주장



"현대사회 가족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낮아지는 요즘, 가족포교를 위해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 교수(사진)는 4월 19일 조계종 포교원이 개최한 제71차 포교종책연찬회에서 '현시대 가족포교 필요성과 대책'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백 교수는 먼저 "불교의 전통이 지금 세대에서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다. 법회 조직이 사라지거나 참여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족 간 법회 참석 유도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어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거리를 줄여야만 한다. 특히 부모가 자식들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상담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불자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 교수는 불자부모의 교육을 위해서는 가족상담 및 신행 강화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가족간 역할놀이 실습, 사찰 가족봉사, 불자가족 주간 선정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백 교수는 "사찰에서 임산부법회, 사춘기 자녀법회 등 생애주기별 가족법회와 함께 가족사진 촬영 등 가족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은 사찰의 가족법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림사는 북카페와 자비상담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담 스님은 "연기의 관점에서 개인의 신행활동은 가족, 우리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불교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적 수단을 활용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며 "가족법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 가능한 새로운 법회양식을 도입해야 하며, 가족들의 전체 상담과 도심지역 가정법회 등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포교종책연찬회에서는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 교수와 서울 성림사 주지 현담 스님이 발제를 했으며, 서울 금륜사 주지 본각 스님, 무안 봉불사 주지 지오 스님, 최미선 동련국장, 이기재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본각 스님은 "사찰에 가족이 와 각자 계층에 맞게 시간을 보내려면 법회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기본 조건"이라며 "어린이 청소년 계층에 맞는 법회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신규) 접수 공고

신청 대상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지역가입자에 한함)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기존 가입자 포함).**

다만 종단 미등록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의 도제, 종단 미등록 법인의 임직원, 소속 사찰의 권리인 및 관리인. 권리인 · 관리인 · 임직원의 도제는 제외함.

지원 금액

1인당 월 36,000원(정액)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2017년 월10,800원, 2018년 월18,000원, 2019년부터는 월36,000원 지원함.

지원 신청 및 심사

신청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승적상 재적교구본사로 신청함 (기존에 지원 신청한 스님은 재신청할 필요없음).**

■ 신청기간 : ▶ **상반기 :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 10월 1일 ~ 10월 31일**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 교구본사 : 교구본사는 접수내역을 정리하여 승려복지회로 이관함.

■ 지원심사 : 승려복지회는 교구에서 이관된 지원신청 서류마감 후 30일 이내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함 (신청과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종단 홈페이지 참조).

※ 참 고 : 2017년도부터 각 안거 결계미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조계종 승려복지회 : 02-2011-1726~27, 팩스 02-733-3603

■ 기 타 : 세부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